

한국요리 영문으로 책출판

수잔 김씨 「Lowfat Korean Cooking」, 3백여 종류 「진수」요리법 소개

한국음식을 좋아하고 한국음식 요리 하는걸 좋아해 미국은 지 33년이란 긴 세월동안 하루도 한국음식을 먹지 않은 날이 없다는 수잔 김 (55)씨.

그녀가 마침내 영문으로된 한국요리책을 출판해 지역사회에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Lowfat Korean Cooking」이란 요리책에는 식혜, 떡, 불고기등 한국의 대중음식은 물론 미국인의 입맛에 맞게 조리법을 기술한 샐러드, 에그롤, 찌개종류등이 총망라 되어있다.

「62년도에 남편과 결혼해 미국에 올때까지만 해도 한국 요리에는 전혀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엘 오니 미국인들이 유난히 쌀찌는걸 싫어하더군요. 우리 한국음식들이 대부분 저 칼로리잖아요, 거기에 착안,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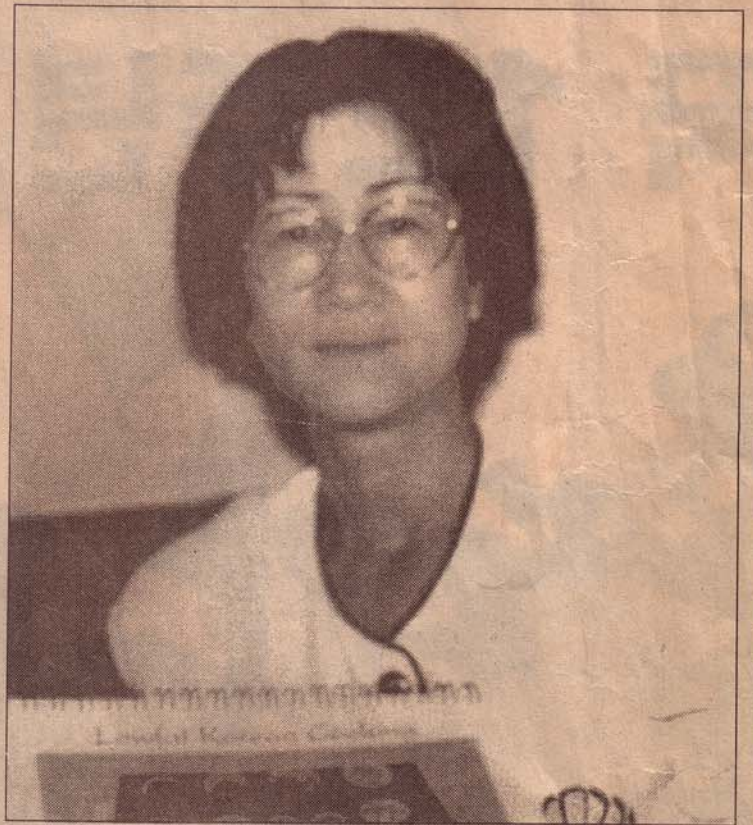
미국인들이 모이는 곳에는 아무리 음식을 많이 장만해도 항상 동이 날 정도로 자신의 음식이 인기가 있다는 김씨는 「미국에서 살다보면 우리 고유의 전통음식이 점점 미국화 되

어 본래의 제맛을 잃게 된다」고 안타까와 하면서 자신의 요리책이 한국요리에 관심있는 미국인과 우리 교유의 음식을 제대로 전수받을 기회가 없는 한인 2세대들에게 좋은 지침서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콩나물국에서부터 계장, 김치, 찌개에 이르기까지 약 3백 종류의 요리법이 일목요연하게 인쇄된 요리책의 겉장에는 태극기와 성조기가 나란히 기재되어 눈길을 끄는데 김씨는 자신은 미국은지 30년이 지났지만 한번도 한국인임을 잊어본 적이 없다고 한다.

정신집중을 기울이지 않으면 요리의 참맛이 살아나지 않는다는 김씨는 약 5백부의 요리책을 인쇄, 미국마켓을 돌며 직접 판매하기도 했는데 반응이 무척 좋았다고 한다. 김씨가 살고 있는 아번지역 신문은 김씨의 요리책을 특별보도 하기도 했다고.

한국음식으로 미사회에 한국을 알린다는데 일조를 하고 싶다는 김씨는 다음에는 한국 전통 궁중요리책을 펴내고 싶다는 계획을 밝힌다. 김씨의 요리



▲영문으로 한국요리책을 출판, 화제를 불러일으킨 수잔 김씨.

책은 권당 24달러 99센트이며 아래의 주소로 주문하면 된다.

▲주소 P.O. BOX 34,

Auburn, CA95604-0034.

▲전화 (916) 823-8461.

〈이계숙 기자〉